

WTO 공식 출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12월 8일 제네바에서 WTO 출범에 관한 회의를 갖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식출범키로 확정했다.

세계 1백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WTO의 출범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의 GATT는 WTO에 흡수된다.

또한, 12월 9일 GATT는 마지막 회의(제50회)를 갖고 WTO사무총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견이 많아 올해 1월말 첫 WTO회의시 선출키로 했다.

이로서 WTO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일명: 세계은행)과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의 하나로 세계의 무역질서를 강력히 주도하게 된다.

한편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심의중인 WTO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WTO 이행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본격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WTO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이번 회기내에 순조롭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화 대비, 정부 조직 개편

—농림수산부 농산물 유통국 ‘유통정책과’와 ‘원예특작국’으로

정부는 3일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안을 단행하였다.

특히 농림수산부 조직개편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응, 국제경쟁력이 열악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양정국 농업구조정책국 등 3개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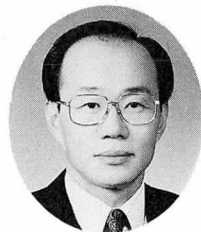
농업정책실로 묶어 3개 심의관실로 기능을 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유통국이 개편되어 유통정책국과 원예특작국의 2개국으로 확대되며 농업협력통상관실이 국제농업국으로 격상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현재 2차관보 1실 6국체제에서 1차관보 2실 5국체제로 바뀌게 됐다.

한편 농진청은 군지도소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현장지도 기능이 없어지는 대신 농산물검사기능을 추가하게 되 현재의 지도·연구기관에서 연구·검사기관으로 바뀔 전망이다.

축산국장에 안덕수씨 전보 발령



안
덕
수
축
산
국
장

농림수산부는 구랍 27일과 28일 축산국장에 안덕수 감사관을 전보 발령하는 등 국장급과 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농림수산부는 원광식 축산국장을 농업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전보하는 한편, 새로 신설되는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장에 천중인씨(전 농경련 파견), 농진청 종축개발부장에 김경남씨(전 축산경영과장)를 내정하고, 정상원 국립종축원장을 산림청으로 전출했다.

또한 과장급 인사에서는 축산정책과장에 김달중 축산물유통과장을, 축산경영과장에 김남철 초지사료과장을, 축산물 유통과장에 최상태씨(FAO 파견)를, 가축위

생과장에 배상호 동물검역소 서울지소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손정수 축정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갑일 가축위생과장은 동물검역소 서울지소장으로 전보되었다.

한편 김영상대통령은 이에 앞선 개각에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과 최양부 청와대 농림수산 수석을 유임시켰다.

육가공 및 유제품 리콜제도 도입 방안 마련

보사부는 지난 12월 19일 유통중인 식품이 불량식품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생산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회수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는 리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한국식품공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식품리콜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보사부 김진수 식품관리과장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와 리콜제도를 연계시켜 추진하고 우선 1차로 인체위해 우려가 높고 유통구조가 체계화된 유제품 및 식육가공품부터 적용 하되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1월부터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10월부터 식품 리콜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리콜상황접수와 리콜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정부와 기업에 설치키로 하고 리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리콜 이행지시에 불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식품위생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추진계획 발표(보사부 식품관리과장), 외국의 사례 발표, 앞으로 실시될 리콜제도에 앞서 선행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 농수축산물 111개 품목에 긴급관세 적용

올해부터 돼지고기, 쇠고기, 보리, 감자, 인삼, 옥수수 등 1백11개 농축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경우 관세의 3분의 1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추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1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개정안』 등 관련규정을 고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의 과소에 따라 발동기준을 별도로 정해 국내외가격차상당세율(TE)의 3분의 1이내에서 특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육처리 국가기술 자격제도 시행

식육처리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10월 26일 한국농어민신문사 주최로 열린 “냉장육 유통체계 구축 및 축산물 등급제 정착세미나”에서 김달중 농림수산부 축산물 유통과장은 육류 유통개선을 위해 식육처리 인력의 자긍심을 높여 직업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이므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식육처리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소 종사자는 물론 도축장 및 육가공공장 관련자를 대상으로 식육처리 기능사 1급과 2급 시험을 실시, 식육처리기술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육처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 신설계획(안)에 따르면, 식육처리 기능사 1급인 경우 필기시험(식육학개론, 식육위생학, 식육저장학, 식육가공학)과 식육의 부위별 정형방법을 각각 치루어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김달중과장은 자격제도시행을 위해 보건사회부 및 노동부와 협의하여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오늘 95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돈외모심사 5개 부위로 축소

- 종축개량협회 올해부터 시행예정

올해부터 종돈외모심사기준이 현행 7개 부위에서 5개 부위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현행 7개 부위의 종돈외모심사기준을 내년부터 5개 부위로 조정, 부위별 심사점수에 차등을 두고 품종별로 산육형, 번식형으로 구분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의 외모심사기준은 일반외모, 머리, 목, 전구, 중구, 후구, 지체 심사로 총 7개 부위인 것을 일반외모, 머리 및 목, 몸의 구성, 지체, 유기 및 생식기 심사로 총 5개로 2개를 줄이는 한편 지체와 유기, 생식기 부위의 점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체 부위의 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은 과거 돈사바닥에 깔짚을 사용하던 것이 최근 콘크리트 바닥이 주종을 이뤄 지체가 강건해졌기 때문이고 유기 및 생식기는 종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월 22일 축산물 등급화 등급화 거래규정과 도체의 등급판정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의 등급화 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표 1>과 같다.

또한 도축장 경영자가 고시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

<표 1> 고시된 거래지역 및 축산물의 종류·형태

고시 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시행 일자
서울특별시, 제주도	소, 돼지의 도체	'95. 2. 6
부산직할시	돼지의 도체	'95. 2. 6
	소의 도체	'95. 6.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직할시	돼지의 도체	'95. 6. 1
	소의 도체	'95. 10. 1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등급판정시행 도축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축산물 등급화 거래 규정을 '9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축산물의 등급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기준과 적용조건을 정한 도체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에 의하면 돼지 도체의 경우 등급기준은 박피인력측정시 도체 중량 A등급의 경우 상한선을 기존의 75kg에서 81kg으로, 하한선의 경우 현행 54kg에서 55kg으로 각각 6kg, 1kg 상향 조정되었다.

등지방두께의 경우 A등급의 상한선이 현행 14mm에서 16mm로, 하한선의 경우 4mm에서 6mm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돼지도체의 등급기준의 적용조건은 품종, 연령,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나 거세하지 않은 수돼지의 도체는 1개 등급을 낮춰 최종 등급으로 판정하기로 하고 이기준에 의한 등급 판정은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판정하고, 외관 및 육질에 의한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키로 되어 있다.

이번에 고시된 도체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호주, 도축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사업 중지

호주 식육연구공사(MRC)는 8월말 '91년부터 약 27억 호주달러(약 1조6천억원)를 투입해서 개발해 왔던 도축처리 자동화시스템(Butcher Tech.)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중지를 결정하였다.

구상단계까지 포함하면 거의 15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이 대형산업은 생체의 반입으로부터 도축·지육처리·반출까지를 자동화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었으나 건설계획의 지체와 기술적인 문제, 특히 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처리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도시기가 계속 연기되어 왔었고 건설비가 당초계획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만일 이 시스템이 완성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건물 안의 실험시설은 해체되고 그 곳에는 기존의 재래형 도축설비가 설치된다고 한다.

벨기에, 일본으로 돈육수출 시작

벨기에는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돈육처리시설을 지정하여 빠르면 올해 안에 수출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는 유럽 전체의 7%(약 100만톤)를 차지하는 국가로 1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약 400두에 달하며 피에프렌종 중심이며 랜드레이스종 및 이들의 교잡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돈육업계는 EU(유럽연합)지역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그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일본으로의 돈육수출은 '93년에 이미 위생검사 조건 등을 통과하였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돈육처리 시설이 지정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정된 처리시설은 20개소이며 그 중 2~3곳은 수출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일 돈육수출이 실현될 경우 지난해 부터 일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네델란드, 프랑스 등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흑돼지 목장 개장

— 신세계 상품차별화 시도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경남 산청군 오부면 대현리에 「신세계 직영 흑돼지 목장」을 개설했다.

이 흑돼지목장 개장은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농축산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발굴 육성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 움직임으로 신세계

가 상품차별화전략의 일환으로 작년 2월부터 검토 추진해오다 5월 협력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흑돼지구입자금과 사료비 등 1억원을 투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장은 돈사 4개 등 1천여평의 방목장을 비롯 오폐수 처리시설 자가비료생산시설 등을 갖춘 총 4천7백평 규모로 방목사육을 통해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작년 11월 현재 1백50두의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데 5백50두를 산지에서 추가로 구입하였고, 올해에는 2천1백50두를 사육 1천5백두를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미국산 옥수수145만톤 도입

미농무성이 구랍 20일자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 3만8천톤의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한데 이어, 최근들어 두번째로 145만톤을 더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160만톤과 20만톤의 옥수수를 수입한 이래 수입을 재개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10년동안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이었으며, 1993년에는 사상 최대인 1,190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한 바 있다.

일본 배합사료 생산 전년보다 5% 감소

일본이 금년 9월말까지 생산한 배합사료와 혼합사료 생산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축종별로 보면, 브로일러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7.6%로 가장 많이 감소한데 반해, 육우용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율은 1.1%였다. 이 기간중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470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 또한 이 기간중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1,752만톤이었다. 資料